

'5·18 비극' 주남·태봉마을, 스토리 입힌다

5·18기념재단 내일 토론회...광주·전남 자치구, 50여 사적지 보존 방안 논의 동구, 내년 3월까지 자료 수집·기록화...웹툰·창작연극 등 추진

5·18항쟁 관련 피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남마을'과 '태봉마을'이 40년의 세월을 넘어 비극의 역사를 극복한 역사적 스토리 공간으로 탄생한다.

5·18항쟁 당시 버스 총격사건으로 주민 15명이 숨진 '주남마을'과 주민 전원이 계엄군에게 저항하다 끌려가서 고초를 당한 '태봉마을'의 비극이 재조명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광주·전남 자치구들이 광주·전남에 산재한 약 50곳의 5·18 사적지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내놓는다.

8일 5·18기념재단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10명의 자치구 실무자들이 사적지 보존과 활용에 관한 의견과 계획을 제시한다.

'5·18 사적지 보존과 활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가 사회를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전남도 5·18민주화 및 과거사 지원센터 팀장, 광주시 5·18선양과장을 비롯해 광주 5개 자치구 실무자와 광주시 관공제단, 김광란 광주시의원,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등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시 동구의 사적지 활용계획인 '모모의 5·18이야기 기록화 및 기념사업'이 눈길을 끈다.

'모모'라는 이름은 미하엘 엔데(Michael Ende)의 동화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소녀의 이름으로, 동화 속에서 모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새 스스로 답을 깨치거나 진실까지 털어 놓게 된다. 동구는 이에 착안해 5·18의 숨겨진 진실을 주민들의 말을 통해 알리자는 의미로 이 '모모'를 따왔다.

1980년 5월 23일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던 광주시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에서는 11공수여단이 광주-화순간 국도를 지나가던 25인승 버스에 총격을

가해, 승객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돼 있다. 계엄군은 부상자 중 두 명을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총살한 후 암매장했다.

광주 동구 소태동 태봉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지역방위군을 편성해 계엄군과 대항했다. 40여명의 주민들은 5·18이 끝난 후 계엄군에게 연행돼 온갖 고초를 겪은 곳으로 역사적 의미 또한 깊은 마을이다.

이날 발표를 할 김해정 동구 문화기반조성계장은 "동구는 주남·태봉마을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부터 3월까지 5·18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자료를 수집 및 기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5·18 이야기 웹툰을 제작 및 보급하고, 발굴된 스토리를 기반으로 창작연극도 제작·공연하는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광산구내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대해 추가로 사적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1980년 5월 22일 광주 진입 시민군과 계엄군의 대치 장소인 '송정리역 앞 광장', 송정리 시위군 중 집결지였던 '송정리역 앞 광장', 계엄사령부 작전본부였던 '송정리 공군비행장',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인 '윤상원 열사 생가' 등 총 6곳을 고려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지적됐던 사적지의 관리부실 실태도 다시 들여다보고 관리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사유지로 지정된 사적지들의 관리 소홀 문제점을 비롯해, 40년이 지난 사적지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과 도시 개발로 옛모습을 상실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종원 광주시 5·18선양과장은 "1980년 당시 원형이 잘 보존된 사적지에 대해 문화재 등록 등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타 자치단체 관리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단계별 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양림동에 별이 쏟아진다 8일 오후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양림교회 앞 정원에 성탄트리 등장해 연말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급식 대신 상품권 3만원 광주교육청, 20만명에

광주교육청이 20만명의 지역 유·초·중·고 학생 가정에 1인당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속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 대상인 유·초·중·고·특수학교 20만 명의 모든 학생 가정에 식재료 구매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3만원 상당이다.

상품권은 별도 신청 없이 학교에서 학생 인편, 위경스루, 드라이브스루, 등기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며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문자발송을 통해 지원 사실을 통보한다.

이번 상품권 지원사업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협의해 진행하는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상품권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과 부분등교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품권은 식재료 구입비로만 전용 사용해야 한다.

식재료 상품권 지원사업을 위해 시의회 등과 조인 예산 사용 협의를 거쳐 교육청·시·자치구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로 집행하며, 총 60억원 규모다.

홍양춘 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장은 "식재료 구매 상품권 지원으로 급식 중단 등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식재료 소비가 촉진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동신대 6개운영 '전국 최다'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전국 대학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가장 많이 운영하는 학교로 이름을 올렸다.

동신대 식품영양학과는 최근 개소한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강진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39곳은 전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왔으나 거리적인 문제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회원 시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강진지역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급식환경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번 강진군 센터 개소로 동신대 식품영양학과는 전남도, 광양시,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을 포함한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6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인욱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식품영양학과 교수)은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힘쓰겠다"며 "특히 지역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광주 북구, 2021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11일까지 6325명

광주시 북구는 오는 11일까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6325명을 모집한다.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원관리, 실버커피방역, 비엔날레권역 쓰레기 해결단, 스콜존 교통지원, 학교 환경정비, 불법주정차 계도 등 총 4개 분야 59개의 사업으로 이뤄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로 실외에서 활동하는 일자리가 제공

될 방침이다.

참여대상은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시장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가능한 주민이다.

근무조건은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근무 시 27만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되며, 시장형의 경우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참여자 선발은 수행기관에서 기준표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12월 31일까지 최종 참여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복 해임' 논란 광주 명진고 교사 7개월만에 복직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던 광주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 손규대 교사가 해임 7개월여 만에 복직한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진고 측은 손 교사에 대해 9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시 교육청에 알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명진고 측이 손 교사를 9일 복직시키기로 했다"며 "오늘 중 공문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교사는 지난 5월 8일 해임된 지 7개월여 만에 복직되는 것이다.

도연학원의 전 이사장(김민전 전 이사장 부인)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지난해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3일 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이러한 결정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지를 학교법인에 전달하고, 9일까지 공문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와 갑질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를 추구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 학 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생활교육상담학 전공)	3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점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형일: 2021. 1. 18(월)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30
		성경연구학과(Th.M.)	10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14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15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일반전형
·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 전형일: 2020. 12. 11(금)/12(토)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1길 36 | 입학문의 ▶ 학 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